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전일제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 요약

김창균

권영종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고속도로 전용차선의 실시는 수년전부터 논의되어 왔는데, 지금 시점에서 시행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한 일로 받아들인다. 이와 같은 전용차선의 확대 실시는 대중교통 중심 교통정책의 일환으로서 궁극적으로 전반적인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용차로 전일 실시는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시행중인 환승센터의 구축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부지 선정, 버스 노선 등에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된 기관들 간에 원활한 의견수렴 및 교류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일제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가 기대되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대호 (경기도 교통개선과장)

경기도에서는 버스전용차로 전일제 시행에 대비하여 경기도 버스 노선 조정과 접속도로 정비 등을 준비하고 있다. 전일제 시행을 위해서 환승센터의 구축이 필수적인데 한군데의 부지를 대상으로 환승센터를 선정하기보다는 두 개 이상의 부지를 대상으로 버스노선과 버스이용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일제 시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울시 권역의 고속도로 IC에서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서 접속도로의 전용차로 확보, 버스의 연속성 있는 설계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현재와 같은 방식의 접속도로로는 매우 극심한 혼잡과 사고를 유발할 높은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김창균 (관동대학교 교수)

먼저 주중에 버스이용수요가 충분한가를 심각하게 검토하는 것이 요구된다.

서울시, 경기도간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단계적인 이용수요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승용차로부터 전환되는 수요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적절한 환승센터의 운용도 전일제 실시의 성공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추진하기로 한 7월 시행은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기관간에 밀접한 교류와 협조가 현시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버스 전용차로로의 진출입이 지금보다는 훨씬 빈번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 버스기사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훈련도 함께 뒤따라야 할 것이다.

김형철 (경원대학교 교수)

도시계획차원에서 일정구간에서 버스에 차선을 배당하는 것은 매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일이다. 현 도시의 여건과 추이를 살펴 볼 때 대중교통 중심의 정책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버스차로의 전일 시행은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본다. 전일제의 효과분석에서 버스와 승용차의 시간가치를 같게 하여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전일제 시행은 통행속도, 통행시간, 총 통행 인·시간측면에서 본 발표에서 산정된 결과보다 훨씬 바람직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승용차에 대한 분석과 시행시기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남승석 (신성엔지니어링 부사장)

고속도로 전용차로 실시는 교통체계관리의 대표적인 성공사례인데, 금번 전일제 실시를 위해서는 접속도로에서의 적절하고 합리적인 설계와 운영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버스운행의 연속성 확보가 중요한 관건인데, 이를 위해서 연결로와 접속되는 도로들에 대한 전용차로 실시가 필히 병행 실시되어야 한다. 전일제실시로 승용차의 혼잡이 예상되는 바, 이를 위해 우회도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전 시뮬레이션 작업을 통해 전반적인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최적 대안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

전일제 실시는 신탄진부터 한남대교까지 전구간에서 시행하는 것이 운전자의 혼선을 줄일 수 있고, 시행상 효과도 더 크다고 본다. 현재 9-12인승 승합차에

대해 6인 이상 탑승시 전용차로 이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전일제 실시로 인해 보다 많은 차량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단속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12인승 이상 차량에 대해서만 전용차로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버스차로 전일제 시행은 화물차 운전자의 반발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화물차에 대한 향후 합리적인 운용계획도 함께 사전에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승호 (국토해양부 대도시교통대책추진단장)

현재 심각한 공해, 지구 온난화, 에너지 위기 등을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통행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대중교통 중심으로 교통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일이다.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고속도로 전용차로제가 전일로 확대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현재 관련 기관간 업무현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제 추진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승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되고 있다.

이재림 (한국운수산업연구원 원장)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전일제 시행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버스전용차로 실시구간은 평일에는 오산-한남대교 구간이 바람직하고, 금요일 오후, 토·일요일, 특별수송기간에는 신탄진-한남대교 구간이 바람직하다. 운영시간은 24시간 전시간 운행이 운전자에게 혼선을 주기 않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이는 23:00-익일 06:00의 시간에 일반차로에도 차량이 적기 때문에 전용차로 운영이 다른 차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데 근거하고 있다. 전일제 시행은 승합차량의 이용이 늘 것으로 예상되어 도로이용의 효율성은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김창균